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본원	직 위	연구위원	성 명	김영숙
출장기간	3/19-3/26 (6박 8일)		출장지	미국 뉴욕		
출장목적	제61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참석					
경비부담	본원전액 부담: 약 450만원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회의명			회의내용			
□ 제6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 강화 - 북경행동강령 및 SDGs 이행에 있어서 성별통계의 활용성 제고 - 합의 결론 도출			

※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7. 3. 28.

출 장 복 명 자 : 김 영 숙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미국 뉴욕

제6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2017. 3. 28.

보고자 : 김영숙

성인지예산센터 연구위원

I. 출장 개요

1. 출장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한 혁신은 고용환경을 크게 변화시켰고, 이 추세는 세계화에 의해 더욱 확산되고 있음.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음.
- 제61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주요의제인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는 곧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과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Goal 5)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의제이기도 함.

나. 목적

- 제61차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하여 유엔대표부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s) 도출과정을 지원하고 현안에 대한 국제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2. 출장 기간 및 출장지, 출장자

가. 출장기간 : 2017년 3월 19일(일) ~ 3월 26일(일) 6박 8일

나. 출장지 : 미국 뉴욕 유엔본부

다. 출장자 : 김영숙 연구위원(성인지정책연구실)

Ⅱ. 세부일정 및 논의내용

1. 세부일정

일자	세부내용	장소
3/19(일)	○ 출국 (서울 10:00 → 뉴욕 11:00 KE 081편)	서울 → 뉴욕
3/20(월)	○ (전문가패널) 북경행동강령 및 SDGs 이행에 있어 서 성별통계의 활용성 제고 10:00 ~ 13:00	뉴욕 유엔본부
3/21(화)	○ Informal consultations 14:00 ~ 19:00	뉴욕 유엔본부
3/22(수)	○ Follow-up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s and decisions 10:00 ~ 12:00 ○ Informal consultations 15:00 ~ 20:00	뉴욕 유엔본부
3/23(목)	○ Informal consultations 10:00 ~ 19:00	뉴욕 유엔본부
3/24(금)	○ Action on draft proposals and other outstanding issues 10:00 ~ 12:00 ○ Informal consultations 15:00 ~ 18:00	뉴욕 유엔본부
3/25(토) ~ 3/26(일)	○ 귀국 (뉴욕 13:00 → 서울 16:25 KE 082편)	뉴욕 → 서울

2. (전문가패널) 배경행동강령 및 SDGs 이행에 있어서 성별통계의 활용성 제고

가. 주요 논의 내용

- 2030 의제를 실현함에 있어서 양질의 성별통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자들은 각국 정부가 여성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통계 수집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함.
- 발표 및 토론을 통해 MDGs로부터 SDGs로의 전환 시점에 있어서 성별통계의 이용가능성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전문적인 통계 기관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짐.
- 위원회 부의장인 Andreas Glossner는 2016년에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이 SDGs의 성취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산출한 230개의 고유 지표 중 SDG 5에 해당하는 지표의 80% 이상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측정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전문가패널을 시작함.

나. 주요국 발언 요지

(Linda Laura Sabbadini, Head of Research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Italy)

- 양질의 성별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가통계기관은 노동 인구 관련 공식 자료에서 여성, 어린이, 노인을 제외하고 성인 남성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등, 통계 생산 시 성별을 주요 변수로 감안하지 않았음을 지적함. 이탈리아에서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했으나,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문제 지역이 잘못된 통계로 인해 대상지역에서 누락된 사례를 소개하며, 잘못된 통계는 정책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함. 반대로, 성별통계를 잘 활용한 사례로 여성폭력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한 캠페인 성공사례를 소개함.

(Aija Zigure, President of the Central Statistical Bureau of Latvia)

- 기존의 조사방식으로는 여성의 다면적인 현실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보다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함. 라트비아의 경우 2011년부터 국가 수준에서 본격적인 성별통계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조사방식을 보완하였고, 이를 통해 성별통계의 질이 제고됨. 또한 사법당국에 의해 축적된 행정자료 이용도 가능성을 제안함.

(Sian Philips, Executive Officer, Gender Equality Branch,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Australia)

- 성별통계의 활용 목적은 여성의 삶이 남성의 삶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통계자료는 수집 및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함. 이와 관련하여 호주가 구축하고 있는 세 가지 성별통계 사례를 소개함. 첫째, 가

구단위 자료에서 성별 빈곤자료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빈곤에 관한 자료를 전통적인 조사 방식에 근거한 가구단위로 구축하지 않고 성별확인이 가능한 개인단위로 구축함으로써, 가구구성원의 빈곤상태 파악이 가능해짐. 둘째, 여성폭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연구를 지원함. 셋째, 장애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여성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함.

(Janat Mukwya, Cabinet Minister for Gender, Labour and Social Affairs of Uganda)

- 우간다는 African Charter on Statistics을 비준한 17개 아프리카 국가들 중 하나로 성별통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UN-Women의 지원을 통해, 2030 어젠다와 관련된 106개 국가 성평등 지표를 개발하였음. 그러나 성별통계의 원천이 되는 조사들의 간격이 길고, 최소행정구역 단위 자료가 확인 가능한 조사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Lucia Scuro, Social Affairs Officer, Gender Division of the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Montevideo Strategy를 소개함. 해당 지역의 여성 연합은 40년 전에 창설되어, 성평등을 이루는 데 필요한 공공정책 입안 및 실시가 명시된 어젠다를 채택해 왔음. 3년에 한번 이에 대한 국가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Montevideo Strategy이며, 이는 곧 국제적인 수준의 이행과제와 지역 어젠다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성평등부처를 갖춘 국가통계기구를 만든 국가도 있었으며, 19개 국가에서 비교 가능한 무급노동 지표가 산출 가능해졌음.

다. 국제기구 및 NGOs 발언 요지

(모로코)

- 성별통계는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율과 여성에 대한 폭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하며, 국가별 통계산출능력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성별통계를 산출할 때 어떤 자료를 왜 측정하는지 확인해야 함을 강조함. 국가차원의 통계산출능력 향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함.

(이란)

-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에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국가적인 조사에 여성의 관점을 도입하는 등 이란이 성별통계 생산을 위한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기술함.

(앙골라)

- 앙골라는 가정폭력에 관한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인 여성이 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불가능해짐. 이 문제에 대

해 Ms. SABADINI에게 의견을 요청함.

- 이에 대해 Ms. SABADINI는 이탈리아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었음을 밝히며, 문화적인 문제임을 주장함. 따라서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용인이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문제점(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여성들이 인식하도록 해야함.

(이집트)

- 이집트 국가통계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기술하고, 자료 수집에 있어서 클라우드소싱 방식이 이용 가능함을 제안함.

(스위스)

- 스위스의 경우 청년층의 과외활동이나 지방정부의 여성참여율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고, UN-Women이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개발해야 함을 주장함. 또한 SDG 5에 해당하는 지표의 80% 이상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측정 불가능한 상황에서, 3~5년 후 전망에 대해 질문함.
- 이에 대해 PAPA SECK(Chief Statistician,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은 지방정부의 여성참여율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표 산출을 위한 방법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에티오피아)

- 무급노동을 측정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가 실시한 시간이용조사에 대해 기술하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커뮤니티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을 질문함.

(쿠바)

- 쿠바는 여성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부부처 대표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고, 국가통계기관은 2030 어젠다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브라질)

- 앙골라 대표의 의견에 공감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과 관련이 있으며 경제가 발전해도 사라지지 않은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함. 여성의 경제적인 역량강화가 가정폭력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지 질문함.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별 임금격차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지, ECLAC이 다른 UN 위원회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지 Ms. SCURO에게 문의함.
- 이에 대해 Ms. SCURO는 가정폭력은 과소 추정되고 있으며, 여성의 소득이 가구구성원과의 관계에 주는 수혜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ECLAC은 현재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과 시간이용 활동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함.

- 이에 대해 Ms. SABBADINI는 민간부문의 임금격차가 공공부문에 비해 크고, 이는 민간부문의 경우 초과근무수당과 상여금이 지불되기 때문임.

(멕시코)

- 멕시코도 여성에 대한 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및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산출하고자 함. 이탈리아가 국가수준 하위 단위에서 진행하는 조사가 국제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지 질문함.

(세네갈)

- 세네갈의 국가 기본 계획은 성평등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별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움을 호소함.

(필리핀)

- 우수사례로 2009년 모든 정부기관에게 성별통계의 수집과 유지를 의무화한 여성 마그나카르타의 성과를 기술함. 2016년에는 자산소유권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조사를 시작하였음.

(이라크)

- 이라크는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파키스탄)

- 파키스탄은 성별, 교육, 건강, 가정폭력 등에 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새로운 영역의 통계 수요가 있음.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여성 역량강화 관련 부처와 통계 부처가 함께 발간한 세 권의 출판물을 우수사례로 제시하며, 최소행정단위 수준의 자료 수집에 대해 질문함.

(Women in Informal Employment: Globalizing and Organizing)

- 표준지표만을 가지고는 여성의 현실을 보다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음을 주장함. 전세계 여성의 절반이 자영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소득에 관한 자료는 얻을 수 없음을 비판함.

(Plan International)

- 10~14세 여성에 대한 자료 부족을 제시하며, 이 시기 여성의 무급돌봄·가사노동 참여율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함.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 여성의 지방정부 참여율이 낮음을 제시하며, 지방정부의 성평등 관련 자료의 확보가 시급함을 주장함.

(World Association of Girl Guides and Girl Scouts)

- 모든 SDGs 달성을 위해 성별 뿐만 아니라 연령으로도 구분된 자료가 필요함을 주장함.

(Fundación Microfinanzas BBVA)

-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함을 주장함.

(Widows for Peace through Democracy)

- 결혼 상태를 묻는 질문에 “widow”를 포함시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Human Rights Advocates)

- 여성이 직면한 문제들의 다면성을 인정하고 통계 구조를 이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성평등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주장함.

(Soroptimist International)

- 최소행정단위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찾고, 비전통적인 자료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Swedish Federa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Rights)

- LGBT 여성이 폭력에 가장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2030 어젠다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국가개발계획과 SDG 달성 과정에 관련 이슈들이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함.

(IPAS)

- WHO 자료에 따르면 8분마다 한명의 여성이 위험한 낙태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함. 16세 이하 여성에 대한 생식건강 자료가 없음을 비판하며, SDG 3과 5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가 모성 및 생식건강 자료를 확보할 것을 주장함.

3.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s) 중 한국 관련 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관련 정책을 결의안에 포함시킴

30. The Commission recognizes that women and girls undertake a disproportionate share of unpaid care and domestic work, including caring for children, older persons, persons with disabilities, persons living with HIV and AIDS and that such uneven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is a significant constraint on women's and girl's completion or progress in education, **on women's entry and re-entry and advancement in the paid labour market and on their economic opportunities and entrepreneurial activities**, and can result in gaps in both social protection and pension. The Commission stresses the need to recognize, reduce and redistribute the disproportionate share of unpaid care and domestic work by promoting the equal sharing of responsibilities between women and men and by prioritizing, inter alia, social protection polici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cc. **Promote the entry, re-entry into and advancement in labour markets of all women, including through policies and programmes aimed to the elimination of structural barriers and stereotypes that young women face in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and also to address the challenges faced by women returning from care-related career breaks and by older women, providing access to 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training,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job-matching and career guidance, including towards high wage and high growth occupations.**

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여성고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결의함

o. Adopt, implement, and monitor the impact of, **gender-responsive macroeconomic, labour and social policies** that promote inclusive growth, women's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protect women's right to work and rights at work; mitigate the effects of economic recession;

다. 성별 직종분리는 교육 분야에서 시작됨을 인지하고 여성 교육 및 고용 선택의 다변화를 촉구함

e. Eliminate occupational segregation by addressing structural barriers, gender stereotypes and negative social norms, promoting women's equal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labour markets, education and training, **supporting women to diversify their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choices in emerging fields and growing economic sectors**, such as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recognizing the value of sectors that have large numbers of women workers;

Ⅲ. 시사점

가. 주요의제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 강화”로부터의 시사점

- 교육수준을 막론하고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보다 낮으며 성별 임금 격차는 전세계적으로 약 23%로 추정됨. 특히, 성별 임금 격차의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데, 성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해당 국가의 소득수준 보다는 공공정책임.
-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분야에서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직업별로 살펴보면 관리자의 경우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여 성별 임금 격차는 다른 직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성별 임금 격차는 정규직 부문보다는 여성비율이 높은 비정규직부문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해,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 여성고용환경개선 용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한 상황임.
- 한편,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는 여성을 위한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인 반면, 기존의 성별 격차가 새로운 환경에서 그대로 재현되거나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함.
-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양질의 여성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목 및 전공 선택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존재함. 인문·교육계열의 경우 여성비율이 전체 평균 보다 높은 반면 공학계열의 여성비율은 전체 평균 보다 낮음.
 - 이와 같은 교육 분야의 성별 격차는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주요 의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인지적 교육방법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나. 유엔여성지위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매년 열리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이슈에 관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여성정책 현안에 대한 국제적 현황을 파악하고 합의 결론 도출을 통해 세계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따라서 위원회 참석에 앞서 주요 의제에 대한 리뷰 및 관련된 한국의 여성정책 성과에 대한 정리가 선행된다면, 주요 의제 발표 이후에 이어지는 합의 결론 도출시 유엔 대표부를 지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많은 side event들이 공식행사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여성정책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됨.